땅의 삶과 안정감은 별개다

(이사야 25:1~12)

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2.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학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4.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5.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학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땅의 삶과 안정감은 별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땅의 삶과 안정감은 별개다'
어제는 "땅의 삶과 기쁨의 과정은 별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쁨대신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여름휴가의 마지막 주간인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전라북도 무주구천동에서 조직신학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이셨던 김명용 교수님을 주축으로 제가 존경하는 역사신학의 원로 이형기 교수님,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과 관심 있으신 목사님들이 참여하셔서 1박 2일의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95년 12월에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23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박사 호칭으로 불림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동안 배가 부르도록 박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박사인줄 그제야 알았습니다.
40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각자 소개를 하는데 저는 강릉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개인적인 자리에서 대화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십자가 복음방송'이라고 하니 대단한 기관인줄로 알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관에 속해있지도 않고 혼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김명용 총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염려가 되셨나 봅니다. 다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혼자서 인터넷 방송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느냐며 물으셨습니다.
부산에서 700~800명 정도의 교회를 섬기시는 한 후배 목사님도 대체 어떻게 혼자만의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고 농담어린 대답을 드렸습니다.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성서적 맥락에서는 이를 '평강'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서 평강의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기쁨은 땅에서 정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쁨을 정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에게 들어가심으로 기쁨으로 귀결됩니다. 이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님이 충만하신 상태이며, 아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하나 되심에 참여된 상태가 우리 인간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 기쁨은 피조세계에서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여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혀 기쁨이 아닌 것을 향해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서적인 안정감인 평강에 대한 정의를 내려 봅니다. 피조세계인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창조주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갖게 되는 마음 상태가 평강이고 진정한 안정감입니다. 마귀는 또한 이 평강을 세상적인 안정감으로 바꾸어 인류를 속였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세상 안에서 안정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제는 보편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주된 과녁은 인간이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이 임할 때에 기쁨 외에 또 다른 과녁이 되는 것은 바로 안정감의 추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조건을 조성하여 안정감을 가지려 합니다. 이러한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조건을 조성하여 안정감을 찾으려는 마음 상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신다는 것일까요? 왜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셔야 할

까요? ‘외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의 모든 성읍은 예외 없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2절에서 말하는 견고한 성읍이나 외인의 궁성은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여 만든 장치들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안에서 산다는 것은 안정감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견고함의 상징으로 산이나 반석 등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견고한 토대의 대표는 바로 성벽입니다.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읍과 외인의 궁성이 있었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 안에 포함되어 산다는 것은 대단한 안정감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학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심판 때가 되면 강한 민족들이 안정감의 근원으로 여긴 성읍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민족도 지푸라기와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안정감의 토대를 찾기 위해 살았지만 진정한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심판 때에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읍이나 외인의 궁성은 요즘말로 철밥통 같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수입의 직종에서 일하는 의사라든지 맞벌이 공무원이나 교사 부부의 안정감이란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혹은 두둑한 은행 잔고나 유사시에 지급 될 수 있는 보험금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이 있어서 크루즈를 타고 세계 여행이나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서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강남에 빌딩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정감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안정감을 느끼는 이 세상의 토대에 집중적으로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정감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들에 심판이 내려질 것이고, 이것들을 사랑하던 자들의 심령에도 심판이 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한편 4절을 보면 전혀 반대의 상황이 진술됩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포학자’는 강포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타인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이 포학자의 기세는 성벽에 부딪혀오는 폭풍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 같이 포학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처럼 몰아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빈궁한 자의 특징은 이 세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그 자체가 이미 환란인데 그 위에 더한 환란이 겹쳐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글지글 타오르는 사막에서 폭양을 차단하는 구름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정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빈궁한 자와 환난 당한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안정감의 토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평강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서는 나는 꼭 빈궁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돈이나 부동산이 있든 없든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빈궁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죽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을 믿는 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죄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과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수입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등 돌리며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에 심판의 과녁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드려져야만 합니다.

연금이나 은행 잔고가 두둑한 사람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를 다 꺼내서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 이것을 믿는 마음부터 죽이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는 마음을 죽여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우선 세상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마음에 받아들인 대상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두둑한 은행 잔고를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동산 수입이나 연금을 믿고 있는 마음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해서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없어서 불안한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있는 것으로 안정되려는 마음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두둑한 은행 잔고는 더는 내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평강한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재료가 됩니다. 은행 잔고뿐만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었던 모든 세상의 조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강과 안정감을 누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위한 재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행 잔고나 연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연금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5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셨습니다. 이 말을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우선하여 만날 때에 평강과 기쁨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포학자의 기세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오셔야 합니다. 포학자의 기세가 나를 짓누르면 어마어마한 체감이 느껴집니다. 돌로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겨지는 대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돌로 치는 사람들보다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에서 천사와 같은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새나 피난처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험악한 현실을 우선해서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어진 상황을 먼저 실감하고 세상이 충만한 채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지속하는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첫 번째 대상으로만 만나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삶의 사고나 상황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여기고 마음을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상황들에 의해 마음이 첫 번째로 정복되어 버리기에, 이러한 마음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기 위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세상에 의해 정복되어 있는 나의 마음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부활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나의 마음도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의 사건과 상황을 본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과 평강을 표현하는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삶을 추구해나가는 이유는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안정된 조건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삶의 과정이 진행된 결과가 기쁨과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과 다른 순서를 제시합니다. 기쁨과 평강은 삶을 진행하기 전에 가져야할 밑천이자 재료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일구며 살아가면서 배우자로부터 기쁨과 안정감을 찾으려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적 신앙이 아닙니다. 부부생활에 앞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합니다. 아내와 남편 각자가 십자가를 붙잡고 서로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우선시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이 기쁨과 평강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기쁨과 평강이 부부생활을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가는 재료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기쁨과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면 복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잘 길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자녀와 관계하고 기르기 위한 재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기쁨과 안정감입니다. 자녀를 잘 길러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마음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에 가야만 한다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안정과 기쁨의 토대이시지, 피조의 세상에서 안정과 기쁨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안정감(평강)은 기쁨과 마찬가지로 삶의 목적이나 지향점이 아닙니다. 삶이 시작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밑천입니다. 삶이 진행될 때에 지불되는 비용이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과 평강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비용 없이 하루를 시작하니 삶이 헝클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라는 두둑한 비용을 들이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게 됩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기쁨 부자, 평강 부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쁨을 지불하고 평강을 재료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내시는 하늘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고 평강의 근원이신 아버지께서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시다니 기적입니다. 오늘도 이 기적의 현장인 십자가를 붙잡고 매순간 기쁨과 평강을 비용으로 지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

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